

하늘에 속한 다스림을 받으며 행동하시는 분,
우리의 목자, 우리의 안식, 씨 뿌리는 분이신
그리스도

12/09 월요일

아침의 누림

마 9:20-22

20 보아라, 십이 년 동안 출혈로 고통받아 온 한 여인이 뒤에서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 술을 만졌는데,

21 이것은 그 여인이 '내가 그분의 겔옷만 만져도 나를 것이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22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돌아보시고 "여인이여, 안심하십시오.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낫게 하였습니다."라고 하시자, 그 여인이 그 시각에 나았다.

민 15:38-40

38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여, 대대로 그들의 의복 끝자락에 술을 만들고 그 의복 끝자락의 술에 청색 끈을 달게 하여라.

39 이 술은 너희를 위한 것으로서, 너희가 이것을 볼 때마다 여호와와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게 하고, 또 너희 마음과 눈을 따라 곧 너희를 음행하게 한 것을 따라 구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한 것이다.

40 너희는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마 14:36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옷 술만이라도 만지게 해 주시기를 간청하였으며, 만진 사람은 모두 완전하게 나았다.

눅 8:45-48

45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를 만진 사람이 누구입니까?"라고 하시니, 모두들 자기는 아니라고 하였다. 그때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을 에워싸 밀어 대고 있습니다."라고 하였으나,

46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군가가 나를 만졌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47 그 여인이 숨길 수 없게 된 것을 알고는, 떨며 나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을 만진 이유와 어떻게 즉시 낫게 되었는지를 모든 사람 앞에서 밝혔다.

48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여,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낫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십시오."

히 12:2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하십시오. 그분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마태복음 9 장 20 절부터 22 절까지에서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다스림을 받는 행동을 상징하는 옷 술을 지니신 분으로 계시되신다.

민수기 15 장 38 절부터 40 절까지에 따르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자기 겔옷에 청색 술을 만들고 그 끝에 청색 끈을 달아야 했다(청색은 하늘에 속함을 상징한다). 이것은 그들의 생활 곧 그들의 행함이 하늘에 속한 제한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그들은 하늘에 속한 규율에 의해 다스림과 통치와 제한을 받았다. ... 겔옷은 인간 행위의 미덕을 상징한다. 주님의 겔옷은 인성 안에서의 그분의 온전한 행동, 곧 그분의

인간 미덕의 온전함을 상징한다. 주 예수님의 인간 미덕 안에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었다. 그러므로 병든 여인이 그분의 옷 술을 만졌을 때, 그분의 미덕에서 능력이 나와 그녀에게 이르러 그녀를 치료했다. 하늘에 속한 다스림을 받는 그리스도의 행위에서 나온 미덕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 된다(마 14:36).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7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복음서들과 사도행전, 메시지 269, 55-56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주님의 옷 술을 만지는 것은 하나님의 체현이신 주님 자신(골 2:9)의 인성을 접촉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접촉으로 그분의 신성한 능력이 그분의 온전한 인성을 통해, 그분을 접촉한 그 여인 안으로 옮겨 부어져 그 여인은 낫게 되었다. 가까이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딤후 6:16)께서 그 여인이 구원받고 누리도록, 노예-구주 안에서 노예-구주의 인성을 통해 만질 수 있는 분이 되셨다.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는 ... 그분의 인간 미덕들의 아름다움 안에 치료하는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그분을 믿고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읽는 우리는 그분의 인간 미덕에 의해 치료되었다. 우리가 기도 안에서 그분을 접촉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치료된다. ... 우리가 하늘에 속한 다스림을 받으며 행동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을 접촉할 때, 우리는 치료되고 변화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옷 술을 만질 때의 체험이다. 이 옷 술은 주님의 모든 인간 미덕들의 총체이고, 이 총체는 치료하는 능력을 가져온다. 이 치료하는 능력 안에는 우리의 성격을 바꾸는, 변화시키는 요소가 있다.

이 여인은 믿음을 통해 나왔다. 오늘 우리도 믿음을 통해 낫게 되는데, 이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의 매력에 의해 우리 안으로 주입된 믿음이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7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리 - 복음서들과 사도행전, 메시지 269, 56-57 쪽)

그 여인은 '내가 그분의 걸옷만 만져도 나를 것이다.'(막 5:28)라고 생각했다. "그러자 즉시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인은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껴 알았다."(29 절) ... 질병은 마귀가 병든 사람에게 가하는 억압이다. 그러므로 노예-구주께서 병을 낫게 하신 것은 고통받는 환자에게 베푸신 구원의 봉사였으며, 이것은 여인이 악한 자의 억압에서 구출받고 해방받은 것을 누리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다(행 10:38).

우리들이 노예-구주를 에워싸 밀었기 때문에, 참되게 그분을 추구하는 이들이 그분을 접촉하기가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분을 만질 수 있는 길을 찾았고, 그렇게 하자 그녀의 병이 나왔다. ... 주님은 그분의 미덕, 즉 그분의 능력이 그분에게서 나가 다른 누군가 안으로 옮겨 부어졌다는 것을 내적으로 감지하셨다. 이러한 이유로 주님은 누가 그분의 걸옷을 만졌는지를 물으셨다. ... 에워싸 미는 무리는 구주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못했지만, 그분을 만진 그 여인은 나왔다.

그녀의 병은 생명이 새어 나가는 것을 상징한다. ... 사람이 타락한 때부터 모든 아담의 후손은 계속 이와 같이 병들어 있었다. 타락한 죄인들인 우리 모두는 생명의 본질이 새어 나가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러한 고통 때문에 모든 아담의 후손, 즉 모든 타락한 죄인은 날마다 죽어 가고 있다. ... 오늘날의 사회를 살펴본다면, 여러분은 모든 죄 있는 사람에게 생명의 본질이 새어 나가는 질병이

있음을 깨달을 것이다. (마가복음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7, 168-170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7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리 - 복음서들과 사도행전, 메시지 269-270

12/10 화요일

아침의 누리

시 23:1-3

1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나 부족한 것 없으리.

2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시원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3 내 혼을 소생시키시며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들로 안내하시네.

딤편 1:4 또 꾸며 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요 21:15

15 그들이 아침을 먹고 나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이 사람들보다 그대가 나를 더 사랑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양들을 먹이십시오."

롬 12:2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요 7:38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롬 8:4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마 9:36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시달리며 내버려졌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9 장 20 절부터 22 절까지에서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다스림을 받는 행동을 상징하는 옷 술을 지니신 분으로 계시되신다. 민수기 15 장 38 절부터 40 절까지에 따르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자기 걸옷에 청색 술을 만들고 그 끝에 청색 끈을 달아야 했다(청색은 하늘에 속함을 상징한다). 이것은 그들의 생활 곧 그들의 행함이 하늘에 속한 제한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그들은 하늘에 속한 규율에 의해 다스림과 통치와 제한을 받았다. ... 걸옷은 인간 행위의 미덕을 상징한다. 주님의 걸옷은 인성 안에서의 그분의 온전한 행동, 그분의 인간 미덕의 온전함을 상징한다. 주 예수님의 인간 미덕 안에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었다. 그러므로 병든 여인이 그분의 옷 술을 만졌을 때, 그분의 미덕에서 능력이 나와 그녀에게 이르러 그녀를 치료했다. 하늘에 속한 다스림을 받는 그리스도의 행위에서 나온 미덕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 된다(마 14:36).(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7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리 - 복음서들과 사도행전, 메시지 269, 55-56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시편 23 편은 그리스도께서 다섯 단계로 우리를 목양하심을 말해 준다. 첫째 단계는

풀밭과 쉼 만한 물가와 관련된다(2 절). 풀밭과 쉼 만한 물가는 우리의 영양 공급을 위한 것이며, 보살핌과 누림을 포함한다. 둘째 단계는 의의 길들의 단계이다(3 절). 의의 길들은 우리의 행함을 가리킨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로 채워지며, 그리스도께 양육을 받은 후에 우리는 의의 길들을 걷는다. 셋째 단계에서 ... 그리스도의 목양하심은 우리가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를 지나가도록 인도한다(4 절). 넷째 단계는 전쟁터의 단계이며(5 절), 그곳에서 우리는 대적들과 맞서 싸우고 있다.

바로 이 전쟁터에서 상(床), 곧 잔치가 우리를 위해 차려진다. 최종적으로,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의 집에 평생토록 거주하는 것이다(6 절).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먼저 첫 단계에서 우리를 목양하신다. ... 그분께서 우리의 목자이시므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빌 1:19). 우리는 구원받은 후 즉시 누림의 첫째 단계로 들어갔다. 요한복음 21 장에서 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가 그분을 사랑하는지를 물으셨다. 베드로가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다 때, 주님은 그에게 그분의 어린양들을 먹이라고 당부하셨다(15 절). 우리는 젖을 먹이는 어머니와 같이 우리의 돌봄 아래 있는 어린 사람들을 보살피고 먹여야 한다(살전 2:7).

주님은 또한 우리를 쉼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시 23:2 하, 고전 12:13 하). 푸른 풀밭은 그리스도이다. ... 그 영은 쉼 만한 물가이다. 새로운 이들을 돌볼 때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먹일 뿐 아니라 그들이 그 영을 마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우리는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새로운 이들이 자신의 영을 사용하여 그 영을 마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시편 23 편 3 절은 “내 혼을 소생시키시며 /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 나를 의의 길들로 안내하시네.”라고 말한다. 이것은 부흥되고 변화되는 둘째 단계이다. ... 우리의 혼을 소생시키는 것은 우리를 부흥시키는 것이다. 소생시키는 것에는 새롭게 하는 것과 변화시키는 것이 포함된다. 이것은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신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데,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혼의 주도적인 부분인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목양하실 때 우리의 혼은 소생되고, 즉 부흥되고 변화된다.

생수인 생명 주시는 영을 마실 때, 우리에게서 단지 하나의 강이 아닌 많은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요 7:38). 합당한 인성의 강과 친절의 강과 사랑의 강과 인내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우리에게 많은 강이 필요하다.

주님은 우리가 의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 영을 따라 행하도록(롬 8:4) 우리를 의의 길들로 안내하신다. 오로지 자신의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만이 의를 이룰 수 있다. 우리는 세 부분, 곧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살전 5:23). 우리는 자신의 몸을 따라 행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안에 정욕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의 혼을 따라 행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의견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보다 자신의 영을 따라 행해야 한다. 영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룰 수 있다.(시편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1, 166-170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시편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1-12; 워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0 권, 요한복음 결정 연구, 13 장

12/11 수요일

아침의 누림시 23:4-6

4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저를 위로해 줍니다.

5 주님께서 저의 대적들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제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니 제 잔이 넘칩니다.

6 제 평생에 선과 자애가 분명 저를 따르리니 저는 여호와의 집에 평생토록 거주합니다.

딤후 4:22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고후 12:7-10

7 또한 내가 받은 계시들이 엄청나서 내가 너무 높아질까 봐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전달자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나를 쳐서 내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8 나는 이것이 나에게서 떠나도록 해 달라고, 이 일을 두고 주님께 세 번 간청하였습니다.

9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사람이 약할 때에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장막으로 드리워지도록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더더욱 기쁘게 자랑하겠습니다.

10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경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창 14:18-20

18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19 그는 아브람을 축복하며 말하였다.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람에게 복을 주십시오.

20 원수들을 그대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아브람은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그에게 주었다.

고후 13:1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단계는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를 지나면서 공기 같은 영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하는 단계이다(시 23:4). 우리가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딤후 4:22).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 그분의 임재는 우리에게 위로와 구출과 부축하는 힘이 된다.(시편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1, 171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 사람은 이 땅에서 살며 여러 문제들을 피할 수 없다. ... 어떤 성도에게는 장애가 있는 자녀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일로 인해 이 성도들은 골짜기 안으로 이끌린다. 어떤 형제는 한 지방의 장로인데, 주님께서 갑자기 동역하기 힘든 한 장로 형제를 이끌어 오실지도 모른다. 그럴 때 새로 더해진 장로 형제는 먼저 있던 장로 형제에게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가 될 것이다. 그는 새로 더해진 장로 형제와 싸울

수도 없고 또 자신의 영을 거스를 수도 없을 것이다. 그는 새로 더해진 장로 형제와 한마음 한뜻을 지켜야 한다. 먼저 있던 장로 형제의 영은 자신이 물러나는 것을 허락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는 골짜기에 머물며 고통받아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에 대한 예들이다.

우리가 주님 안에 안식할 때 골짜기가 줄어들고 그늘이 열리며 죽음이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골짜기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 말하지 말아야 한다. ...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디모데후서 4 장 22 절은 주님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계신다고 말한다. 주님은 단지 일반적인 방식으로 우리 안에 계시지 않고,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의 영 안에 계신다. 우리가 골짜기를 지나며 합당한 체험을 얻었다면, 그곳이 주님의 임재를 매우 친밀하게 누릴 수 있는 장소임을 증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더 깊고 더 높은 누림의 넷째 단계에 왔다(시 23:5). 주님은 대적들 앞에서 우리에게 상, 곧 잔치를 차려 주신다(고전 10:21). 주님의 상은 잔치이다. 주일마다 잔치를 갖기 위해 주님의 상 앞에 나아올 때 우리는 항상 우리의 대적들 앞에 선다. 하루하루가 우리에게서 싸우는 날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싸워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패배당할 것이다. 우리의 사업에나 가정에 심지어 교회 안에도 대적들이 있을지 모른다. 한 면으로 우리는 주님의 잔치를 누리지만, 또 한 면으로는 승리를 위해 싸워야 한다. 만일 우리가 한 주 동안 패배당했다면 주님의 상을 그다지 많이 누리기가 힘들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상에 오기 전에 한 주 내내 주님 안에서 싸워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상에서 우리의 잔치이신 주님을 풍성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시편 23 편 6 절은 여호와와 그의 집에서 신성한 선과 자애를 일생 누리는 다섯째 단계에 대해 말한다. 분명히 우리 일생 동안(현시대에) 선과 자애가 우리를 따를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고후 13:14). ‘선(善)’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리키고, ‘자애’는 아버지의 사랑을 가리키며, ‘따르리니’는 그 영의 교통을 암시한다. 고린도후서 13 장 14 절은 우리가 삼일 하나님의 모든 풍성을 누리게 하는 그분의 움직임을 계시한다. 아들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렇게 누릴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이끌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평생토록(현시대와 오는 시대와 영원 안에서) 하나님의 집(교회와 새 예루살렘—딤후 3:15-16, 계 21:2-3, 22)에 거할 것이다.(시편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1, 171-175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69년, 3권, 시편에 계시되고 예표된 그리스도와 교회, 5장;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9권, 활력 그룹, 4, 6, 9장*

12/12 목요일

아침의 누림

마 11:28-30

28 수고하며 짐을 진 사람들이여, 다 나에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안식을 줄 것입니다.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혼이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30 왜냐하면 나의 멍에는 편하고 나의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히 4:9-10, 12

9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일의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10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그의 일을 마치고 안식합니다.

12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효력이 있으며 양날이 선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 찢러 찌개고, 심지어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분별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 5:39-40

39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40 그런데 여러분은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 30:15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돌아와 안식해야 너희가 구원을 얻으며 잠잠하고 신뢰해야 너희가 힘을 얻게 되건만 너희는 원하지 않아

그리스도는 안식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지혜로 취한다면 우리는 매우 바빠질 것이다.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지혜로 취하는 것과 그분을 우리의 안식으로 취하는 것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주 예수님은 수고하고 짐을 지는 데서 벗어나 그분께로 와서 안식하라고 사람들을 부르신다. 마태복음 11 장 28 절에 언급된 수고는 율법의 계명과 종교적인 규정들을

지키려고 애쓰는 수고를 가리킬 뿐 아니라, 어떤 일에서 성공하려고 분투하는 수고를 가리킨다. 그렇게 수고하는 사람은 누구나 항상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 그러므로 주님은 수고하는 이들을 그분께로 와 안식하라고 부르신다. 안식은 율법이나 종교 혹은 어떤 일이나 의무로 말미암은 수고와 짐에서 해방되는 것을 가리킬 뿐 아니라, 또한 온전한 평안과 충만한 만족을 가리킨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7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복음서들과 사도행전, 메시지 269, 59-60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마태복음 11 장 29 절에서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하는 길을 주신다. ... 주님의 멍에, 곧 그분의 생활 방식은 안식이지만, 우리의 멍에는 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된다. 그보다 우리는 주님의 멍에, 곧 그분의 생활 방식을 취해야 한다.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 주님은 그렇게 사시면서 아버지의 뜻만 주의하셨다 (요 4:34, 5:30, 6:38). 그분은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전적으로 복종시켰다(마 26:39, 42). 그러므로 그분은 그분 자신에게서 배우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분에게서 배우는 것은 그분을 외적으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멍에 곧 하나님의 뜻을 취함으로써 우리의 영 안에서 주님을 복사하는 것이다(마 11:29 상, 벰전 2:21).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에게서 배움으로써 우리가 얻는 안식은 우리의 혼을 위한 것이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다만 외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내적인 안식이다. 가장 어려운 것은

우리의 혼이 안식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잠을 못 이루는 것은 그들의 혼이 괴롭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에게서 배울 때, 우리의 혼이 그분의 안식에 참여하여 만족을 얻게 된다(마 11:28 하, 29 하, 30)(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7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복음서들과 사도행전, 메시지 269, 60-61 쪽)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멍에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기뻐하는 대로 행할 자유가 없고 오히려 멍에를 메어야 한다. 젊은이들이여, 자신이 해방되었다거나 매우 자유롭다고 생각하지 말라.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모두 멍에를 메어 왔다. 멍에를 멘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 주님의 멍에는 아버지의 뜻이고, 그분의 짐은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는 일이다. 그런 멍에는 편하여 결코 괴롭지 않으며, 그런 짐은 가벼워 결코 무겁지 않다. ‘편하고’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용도에 꼭 알맞고’를 의미한다. 따라서 ‘어렵고, 엄하고, 날카롭고, 괴롭고’와 대조되는 ‘좋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온화하고, 편하고, 유쾌하고’를 의미한다.

마태복음 11 장 29 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에게서 배우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허하시다. 온유하다 혹은 온화하다는 것은 어떤 반대에도 저항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겸허하다는 것은 자신을 높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은 모든 반대 가운데서도 온유하셨으며, 모든 배척 가운데서도 마음이 겸허하셨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전적으로 복종시켰으며,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무언가를 얻으시기를 기대하지도 않으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에 안식이 있으셨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만족하셨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에게서 배운다면 우리의 혼이 안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사역할 때 반대를 받아 그것에 저항한다면, 우리는 평안을 갖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저항하는 대신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고, 그 반대가 아버지께 속한 것임을 증언한다면, 우리는 혼 안에서 안식을 갖게 될 것이다. 침례자 요한은 그가 투옥된 것이 아버지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이 없었다. 그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깨달았다면, 그는 심지어 감옥에서도 안식했을 것이다. 하늘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언제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몫으로 취하셨으며, 어떤 것에도 저항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언제나 안식하셨다. 우리는 그분에게서 배워야 하고 또한 이러한 관점을 취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혼 안에 안식을 가질 것이다 (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2 권, 메시지 31, 121-122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2 권, 메시지 29, 31, 36

12/13 금요일

아침의 누림

마 13:3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보십시오, 씨를 뿌리는 사람이 뿌리러 나가서

골 2:19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온몸은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머리로부터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함께 짜여,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고전 3:7, 9

7 그러므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9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작지이며, 하나님의 건축물입니다.

벤전 1:23 여러분이 거듭나게 된 것은 썩어 없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요일 3:9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마다 죄짓는 것을 일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벤후 1:3-4

3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미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에 관한 온전한 지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분의 신성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4 그분은 이 영광과 미덕을 통하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약속들을 통하여, 세상에서 정욕으로 부패되는 데서 벗어나,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은 다윗의 자손으로 시작하여(1:1) 삼일 하나님으로 끝난다(28:19). 그 사이에는 ...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다(13:3). 주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분명히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 여기셨다. ... 그분은 진리를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셨고, 그분의 삶은 씨를 뿌리는 삶이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신 주 예수님은 신성한 생명의 분배자이셨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주 예수님이라는 놀라운 인격이고, 뿌려진 씨도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주님 자신이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씨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뿌리셨다(마 13:4 상, 8). 그리스도는 말씀을 의미하는 씨이시고 (13:19),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들인 우리는 토양이다. ... 그러므로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토양인 우리 안으로 뿌려진 생명의 씨이시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7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복음서들과 사도행전, 메시지 270, 70-71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서뿐 아니라 우리 존재 안으로 뿌려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육체 되심을 통해 그분은 생명의 씨가 되셨고, 그분의 사역에서 그분은 이 씨를 사람들 안으로 뿌리셨다. 이것은 그분께서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분 자신을 그분의 믿는 이들 안으로 뿌리셨음을 의미한다.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사시고 자라시고 우리 안에서부터 표현되시기 위해, 생명의 씨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 마음에 뿌리셨다.

생명의 씨가 땅속에 심겨 땅의 요소와 연합되고 땅과 함께 자라 식물을 산출하듯이, 그리스도는 생명의 씨이신 그분 자신을 땅인 우리 안으로 뿌리셨고, 그분과 우리 모두는 함께 자란다. 생명의 씨이신 그분께 어떤 요소가 있으시고, 자라게 하는 땅인 우리에게도 어떤 요소가 있어, 그 둘이 함께 연합되어 함께 자라 한 식물이 된다. 이것이 신성한 생명과 인성이 연합되어 조성된 그리스도의 몸이다. 사실상 그리스도의 몸은, 자라게 하는 토양인

사람의 마음속에 생명의 씨로 뿌려지신 그리스도에게서 자라 나온 한 식물이다.

우리는 씨 뿌리는 이로서 생명의 씨이신 그분 자신을 사람들 안으로 뿌리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보아야 한다. 이 이상이 바로 주님의 회복의 심장부인데, 이것은 이 이상이 주님의 마음의 갈망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 주님은 그분께 선택받은 백성인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연합의 방식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기를 갈망하시는데, 이것은 그분 자신을 우리의 요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표현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시자 표현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존재 안으로 뿌리셨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7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복음서들과 사도행전, 메시지 270, 71-72 쪽)

그리스도는 씨이시며, 우리는 씨의 성장을 위한 자양분이 있는 토양이다.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뿌리신 것은 단지 우리 안에 머무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자라시기 위해서이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자라시는 것이 곧 건축이다.

그리스도는 이미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뿌리셨고, 지금은 우리 안에서 특별한 일 곧 우리의 내적 존재인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는 일(엡 3:17)을 하고 계신다. 이것이 건축이며, 이 건축은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건축은 요한복음 14 장 23 절에서 언급된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할 것입니다.” 이 거처는 삼일 하나님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또한

우리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상호 거처이다.

그리스도께서 ... 교회를 건축하시는 길은 단지 죄인들을 구원하여 믿는 이들과 그분의 지체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그들 안으로 건축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집을 지으시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일해 넣고 계신다. ...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자 우리의 집인 상호 거처일 것이다. 결국, 삼일 하나님과 구속된 사람은 연합되고 섞이고 건축되어 하나의 실체가 될 것이며, 이 실체는 새 예루살렘일 것이다. ... 오늘날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건축의 일을 수행하시는 것이다.(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29, 222-224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29-30

12/14 토요일

아침의 누림

엡 3:16-17

16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고, 17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벧후 1:5-11

5 바로 이러한 이유로 여러분은 각별히 부지런하여 여러분의 믿음에다 미덕을, 미덕에다 지식을, 6 지식에다 자제를, 자제에다 인내를, 인내에다 경건을, 7 경건에다 형제 사랑을, 형제 사랑에다

신성한 사랑을 더하여 넘치게 공급하십시오. 8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안에 존재하고 또 계속해서 많아지면, 여러분을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사람으로 조성되게 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9 이러한 것들이 없는 사람은 눈이 멀어, 멀리 보지 못하며, 자기의 옛날 죄들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잊은 사람입니다. 10 그러므로 형제님들, 더욱 부지런하여 여러분이 부름받은 것과 선택받은 것을 견고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행한다면, 언제라도 결코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11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일이 여러분에게 넉넉하고도 넘치게 주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고 말한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 ‘건축’이라는 매우 특별한 용어를 사용한다. ...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는 것에는 건축이 수반된다. 거처를 정하려 한다면 우리는 먼저 집을 건축해야 한다. 거처를 정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정착하는 것을 함축한다. 그러나 정착하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집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엡 3:17)라는 말씀은 그분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건축의 일을 하고 계심을 강하게 시사한다.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의 내적 존재 안에 거처를 건축하고 계신다.

요한복음 14 장 23 절에서 ... 주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절의 ‘거처를 정하다’라는 말은 에베소서 3 장 17 절의 ‘거처를 정하다’와 같은 의미이다. 삼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 자신을 요소로 하고 또한 우리에게서 나온 무언가를 재료로 하여 건축의 일을 하신다. 이 두 절에 있는 건축에 관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으로 건축하시는 것이 우리 존재와 많은 관련이 있음을 함축한다(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30, 226-227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마태복음 13 장에 있는 씨 뿌리는 이의 비유에서 씨(신성)는 토양(인성)에 뿌려져 토양의 자양분으로 자란다. 이 씨는 ... 그 자체와 토양의 자양분으로 자란다. ... 따라서 그 산물은 씨와 토양 둘 다에서 나온 요소들로 이루어진 구성체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원칙을 본다. 씨가 자라기 위해서는 좋은 토양에 뿌려져야 한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어떤 자양분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자라시도록 준비해 두신 것이다. 하나님은 인성의 자양분이 있는 사람의 영을 창조하셨다.

우리 안에 뿌려진 씨는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이다. 씨가 우리 안에서 자라는 정도는 우리가 이 씨에 자양분을 얼마나 많이 제공하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가 자양분을 더 많이 공급할수록 씨는 더 빨리 자라고 더 번성하게 될 것이다.

성경에 따르면, 성장은 건축과 동일하다. 주 예수님은 “내가 ...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마 16:18)라고 선포하셨다. 건축은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씨가 자랄 때 일어난다.

생명의 근원이신 삼일 하나님은 씨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 존재 안으로 뿌리셨다. 일단 이 씨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영적인 자양분이 되는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를 만나 자라기 시작한다. ... 마태복음 13 장은 오직 좋은 토양(8, 23 절)만이 신성한 씨가 자라기 위해 필요한 자양분을 충분히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건축하시는 것은 요소이신 그분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제공하는 자양분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되어야 한다. ... 우리가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되고 우리의 영에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의 영을 훈련한다면, 자양분이 공급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내적 존재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실 것이다.

에베소서 3 장에서 바울은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우리를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에베소서 1 장 19 절부터 22 절까지에서 언급된 이 능력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고, 하늘들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고,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아래 복종시키며,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여 교회에게 준 능력이다. 이와 같은 능력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고 있으며(3:20), 이 능력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건축을 위해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 영을 통하여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그 영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완결이시다. 한 면으로는 하나님께서 요소이신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또 한 면으로는 우리가 자양분을 제공한다. 이 두 가지를 통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전 존재 안에 그분의 내재적인 건축의 일, 곧 그분의 거처를 건축하는 일을 수행하신다.(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30, 228-22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4 권, 하나님-사람의 생활, 13 장*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69년, 3권, 시편에 계시되고 예표된 그리스도와 교회, 5장

12/15 주일

아침의 누림

마 13:18-23

18 그러므로 여러분은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으십시오.

19 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갑니다. 이런 사람은 길가에 씨가 뿌려진 사람입니다.

20 또 흙이 얇게 덮인 바위 위에 씨가 뿌려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21 그의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즉시 실족하는 사람입니다.

22 또 가시덤불에 씨가 뿌려진 사람은 말씀을 들지만,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로 말씀이 숨 막히게 되어,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23 그러나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인데, 반드시 열매를 맺어 어떤 사람은 백 배, 어떤 사람은 육십 배, 또 어떤 사람은 삼십 배로 거둡니다.”